

먹고 즐기자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매 역, 누가복음 15:21~23]

많

이 피곤하시죠? 40일 새벽기도를 계속 하신 데다가, 오늘은 행사가 많아서 몸이 좀 피곤하실 겁니다. 오늘은 2부 행사가 있어서 조금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 라면 어떻게 그리고 싶습니까?

털 있는 모습으로 그려요.

유대인이니까 털이 좀 있겠죠. 또,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에 일그러진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라고 지칠대로 지친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즐기고 환하게 웃는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 많이 자시고 포도주를 많이 즐겼단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금식하고 절제하는데 예수님은 많이 먹고 아무데서나, 특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열심히 먹더라 말이지요.

죄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면 저 모양이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먹고 즐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육신의 피로가 잔뜩 쌓여 있으면서도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릴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먹고 즐기고 노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기쁨에 젖은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에 삶에 찌들린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평화롭진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땀흘려 일하고 지쳐 있으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내한다고 현관에 서 있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교회 오는 걸음들이 힘칩니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열심히 오십니다.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간혹, 끌려서 오는 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마지 못해서 끌려오는, 어떻게 보면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모습이 간혹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몇 번 예배 참석하면서 차츰 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여간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거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엔 항상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즐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먹고 즐기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몇 분에게 물어 보았는데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먹고 즐기자'가 없대요. 없긴 왜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에 있죠. 누가 먹고 즐기자고 합니까?

아버지가...

예! 아버지께서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면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즐거워 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뭘 그리 즐거워 하실까요? 생긴 게 잘 생겼습니까? 하는 것이 예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에 이런 가사 있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른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며, 즐겁게 노래 부르고,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가나 혼인집 잔치와 같은 곳입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올 때마다,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인상 실컷 쓰다가도 교회만 오면 다 풀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여기 들어오면 모두가 환하게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능력 없다고 차별받고 멸시받는 사람도 이 교회에 와서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잘 낫고 저 사람은 잘 못나고 문제 많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3가지 나오는 것을 아시죠?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전부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의 끝이 전부 ‘즐거워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맞이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면 비유 3가지를 들면서 비유마다 즐거워하더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소나 말이나 짐승을 창조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있을 곳을 만드느라고 다른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의 가장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옛날에는 요리문답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고쳐서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첫째 질문이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나’입니다.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한가지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가 즐거운 겁니까? 우리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 나오는 요한일서의 핵심단어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먹고 즐기자’라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 기쁨이 아들에게 주어진 과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못된 아들이었던가 봅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게 줄 재산, 이왕 줄 것 좀 당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 재산을 받아가서 다 떨어먹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멋대로 잘 살았죠.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처지가 좀 딱해집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지나갑시다. 그렇게 가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는 거죠. 너무나 형편없이 전락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에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돼지 먹는 음식을 뺏어 먹으려다 돼지한테 차이는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야겠다고 돌아가는데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기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 집에서 재산을 달라 해서 떠나올 때 있었던 그 일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다. 종으로라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기에서부터 이 기쁨 날이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에선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람이 있었죠? 날마다 죽노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참된 기쁨은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뭘 좀 해 보아야겠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어설픈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시면 짜증 많이 나시죠? 추월하려는 차? 보내주세요. 들어오려는 차? '바쁜 모양이다' 하고 넣어주세요. 조금 천천히 가면 편안합니다. 운전이 서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래 처음 할 때는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자기 부정이고 매일 죽는 것입니다. 서툰 사람에게 조금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자기 부정'하니까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보면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가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행복합니다. 행복은 행복인데 무슨 행복이고 하니까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애비없는 자식의 행복'이죠. 아버지, 어머니 간섭 없이 혼자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애비 없는 자식의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만 인식을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가던 카센타 사장님이 어느 날 차를 손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무서운 속도로 차를 모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달리는지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놈의 차를 몰고 신나게 다니지 차를 조금 안다면 이 많은 부속 중에 어느 하나가 탈이 나도 움직이지 못 하는데... 탈이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 부속이 몇 개나 되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차를 잘 아는 분이 그런 얘길 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탈이 나도 제대로 못 가는데 이걸 믿고 어떻게 저렇게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더라구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차를 잘 아니까 가다가 고장나면 고쳐 가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안심하고 다니고 좀 아는 사람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저께도 서른여섯 밖에 안되는 박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마흔여섯에 돌아가신 분, 환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이 이제 겨우 원인 모양입니다. 사람이 참 약합니다. 우리 심장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잠시 멈추면 우리 인생도 끝입니다. 몇 년간 뛰는 심장입니까? 평생요? 한 백년 뛰는 심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기계 중에 백 년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심장이 백년 동안 쉬지 않고 뛰니다. 그런데 이게 잘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 버리면, 아니 혼자 있다가 서 버리면 괜찮는데 내가 사람을 여럿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멈춰 버리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무 걱정없이 잘 지냅니다마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요. 자동차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면 걱정이 됩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모양입니다. 몰라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스스로 잘난 척하는 부부죠. '내 아니면 지가 어디 가서 이런

호강을 하며 산단 말이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덕분에 당신이나 아이들이나 이래 살고 있는 것 아니냐?’ 반대쪽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하겠지만 부부 사이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부부끼리만 보면 한 분이 좀 잘 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니 잘 났다’ 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생각하기 전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낫지 않느냐?는 마음이 있으면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행복은 훨씬 더 큼니다. 좌우간 먹고 즐길 수 있는 이 행복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섰을 때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이 참된 기쁨의 원인은 아버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무슨 고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세요 라는데 주는 아버지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아버지, 대학가려면 4년 동안에 한 사천만원만은 들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이천만원만 선불로 주세요. 대학 안 가고 그걸로 사업 밀천을 삼아서 큰 회사를 한번 일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천만원 떼어 주실 분 있어요? 선불로 못 줍니다. 아무도 안 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줄 것 미리 좀 주세요’ 아무도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쫓느냐는 겁니다. 왜 쫓습니까?

이 아들을 이대로 붙들고 버티어서는 도저히 부자관계가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아버지는 굉장한 각오를 하고 이 아이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다 떨어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찾기는 쉬워요. 집이 그대로 있고 그 집 근처에 있는 분 같으면 아버지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우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은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올 것을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아버지는 이걸 예상하고 내준 겁니다. 이걸 주면 재산도 털어먹는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잘 되면 거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생각하고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선악과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다 이런 말은 생각이 깊지 못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를 따먹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독생자를 희생시킬 각오까지 하시고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만드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통 당하실 각오를 하고서 저지른(?) 일이 이 일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떼내어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안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즐거운 날을 지낼 수 있는 것은 이 아들과의 진정한 교제를 원하셔서 그런 희생을 아버지가 각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럼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아들의 요구에 그 돈을 내 주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어떤 관계를 원하셨기에 이런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길로 들어섰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실 각오를 하신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날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다 묻어 놓고 얼굴에 가면 쓰고 여기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기쁘고 즐겁기는 뭐가 기쁘고 즐거워?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집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오늘 주일인데 잠시 휴전하자’ 그래서 얼굴 표정을 좀 바꾸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열심히 하나님 찾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돌아가시면 잠시 휴전했던 것 다시 꺼내 놓고 싸워야 할 부부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기쁘고 즐겁고, 먹고 즐기긴 뭘 먹고 즐겨요?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 삶 자체가 기쁨의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온통 괴롭고 힘든 일만 눈 앞에 잔뜩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아파보세요. 심하게 아파보시면 나만 아픈 게 아니란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한 번 되게 외로워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외로움 때문에 고통 당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들 감추어 놓고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죠. 신혼부부가 특히 그렇게 하죠. 집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찾아오면 어떡하죠?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싸운 흔적을 껌싸게 치우고 그 다음에 깨가 쏟아지는 표정을 지어야 하죠? 남에게는 신혼에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대체로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집 보니까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그게 다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는 잘 안보여 주니까요. ‘다른 집은 잘 살더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설교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한 번 보세요. 아버지 재산 다 떨어 먹고 들어왔죠? 자기는 도저히 아들로써 살 수 없다 종으로만 삼아 달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뭘 잡았어요? 소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말하고 싶을 겁니다.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주인님이라고 부르나요? ‘제가 지금 이걸 먹고 즐길 형편이 못됩니다’ 돼지 양식 뺏어 먹으려다 쫓겨왔으니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마는 못 먹습니다. 지금 그걸 먹을 형편이 됩니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먹고 즐겨야 합니다. 왜요? 아니 이 아들이 그걸 먹고 즐기고 노래 부를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럴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즐겨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러자고 하는데요. 뭐! 보세요. 자기가 한 일, 자기 형편을 쳐다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먹고 즐기자는데, 경비는 누가 내지요? 아버지가 다 내는데요. 그 아버지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해도 먹고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꼭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이런 나에게 사랑을 쏟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한 건 나 자신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아들이 모처럼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칭찬을 할까요? 욕하죠. 아버지 재산을 다 떨어먹은 네가 무슨 낯짝으로 들어와서 아들 행세하고 있냐? 동네 아저씨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잘못된 모양입니다.” 다시 보따리 싸서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못 나갑니다. 이웃집 아저씨들이 그런 소리를 해도 말은 맞지만 이 아들은 맞다고 하면 안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보따리 싸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저씨들, 아줌마들 말이 다 맞더라도 집을 나가지 못함

니다. 왜요? 나를 용서한 아버지 때문에 못 나갑니다. 난 아들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 막 말로 거세게 나가도 됩니다. “재산 떨어먹어도 너희들 재산 떨어먹었냐? 우리 아버지 재산 떨어먹었지 내가 당신들 재산 떨어먹었냐?”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거세게 나가야 합니까? 누굴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웃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큰 소리 쳐야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 놓고 돌아서서 혼자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죽일 놈이죠.” 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색 못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큰 소리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나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큰 소리 칠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보고 자해하거나 괴롭힐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 주셨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뜻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즐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오는 모습 속에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야?’ 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그 때부터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자화상은 어떤 것일까? 영화 안 보시는 분은 용서하십시오. 빠빠용 있죠? 절해고도에 있는 감옥에서 수 없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기어코 성공합니다. 뗏목을 타고 그 넓은 바다를 나가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하늘 향해 소리치르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최근에 나온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감옥을 탈출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습니다. 하수구인지 개울인지 물에 빠져서 엉망진창이지만, 그런데 꼭 그럴 땐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 참 묘해요. 극적인 효과를 살리려고 그러겠지만 그런 장면에서는 꼭 비가 와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뭐라 합니까?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두 손을 치켜들고 고함지르는 모습은 생각납니다. 자유를 얻은 성도의 모습이 그것 아닐까요?

영화 안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많이 부르던 복음송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어디서요?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사냥꾼의 그물에 갇혀서 퍼덕이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르는 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새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닌다면 까짓것 한끼 굶으면 어떻고 다른 새가 나를 욕하면 어떻겠어요? ‘그래 욕 많이 해라’ 그러면서 신나게 날아다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체험하면 우리 이웃사람들의 자잘한 잔소리나 주변사람들의 그 싫은 소리도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먹고 즐기는 기쁨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